

언어 습득에서의 부정적 증거의 역할¹⁾

이 현 진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동이 문법적으로 오류를 보이는 경우에 어른이 그 문법적 오류으로 수정하여주는 과정이 포함되는 지에 관심을 갖는다. 발달 언어 심리학에서 이러한 문제는 언어 입력 자극에서의 긍정적 증거와 부정적 증거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언어 입력 자극의 문제는 중요한 이론적 또는 실질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언어 습득과정에서 문법의 오류를 수정하여 주는 부정적 증거는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의 이론가들은 부정적 증거의 정의를 조금 확대하여 보면 아동의 비문법적인 표현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한국 아동 (준: 2;0-2;11, 연: 10-3;5)의 종단적 산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정적 증거의 역할은 미약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 습득이 외부에서의 자극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기 보다는 본유적인 언어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learnability* 이론에서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론

언어 발달 영역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형식적인 틀 formal model을 이용하여 밝혀 내고자 하는 소위 Learnability 이론이라 하겠다 (Wexler & Culicover, 1980; Berwick, 1985; Pinker, 1989).

Learnability 이론은 아동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의 성인으로부터 접할 수 있는 언어 정보는 유한적 finite이다. 언어 정보가 유한하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모국어가 허락하는 모든 문장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간에 말이 끊어진 불완전한 문장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의 실수까지도 듣게 된다는 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²⁾. 하지만

1)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Chomsky (1986)가 제시한 '자극의 빈곤' *Poverty of stimuli* 참조할 것.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접했던 제한적인 언어 문장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언어 행동을 보여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습득의 불균형적인 상황은 언어 습득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준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learnability 이론에서는 아동이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능력 innateness을 가정한다. 즉, 아이들은 이렇게 제한된 언어 자극을 기초로 하여 어떠한 규칙성 rule 또는 원리 principle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본유적인 언어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규칙성을 토대로 하여 무한한 infinite 문장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Chomsky, 1986). 이러한 대 전제를 받아들일 때 실제적인 언어 습득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아동 자신들이 추출한 규칙성 rule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오류, 즉 규칙성의 과잉 일반화 overgeneralization을 어떻게 설명하는 가이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과잉 일반화는 각 단계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데 동사에서의 과잉 일반화의 대표적 예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과거형, 또는 복수형 형태소의 잘못된 적용이라 하겠다. 영어권 아동의 경우 언어 습득 과정에서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을 불규칙 동사에까지 과잉 적용하여 'go'의 과거형을 'went'대신 'goed'로 표현하거나 복수형 명사에 대한 규칙을 불규칙 활용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man'의 복수를 'mans'로 잘못 표현하는 단계가 있다 (Brown, 1973). 영어권 아동이 과거형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가설을 가정해 보자.

가설 1: 과거를 표현할 때는 동사 어간에 과거형 어미 '-ed'를 붙인다.

가설 2: 과거를 표현할 때 과거형 어미 '-ed'는 규칙 동사에만 붙이고 불규칙동사는 예외적으로

변화한다.

어떤 아동이 가설 1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동은 영어가 허락하지 않는 표현인 'goed'나 'breaeked'같은 표현을 영어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아동이 가설 2를 가지게 될 때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언어 습득상의 문제는 가설 1에서 가설 2로 어떻게 전환되는가이다. 다시 말해 아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오류에서 벗어나 어휘의 성질에 따라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이다. 아동이 가설을 수정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가능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러한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확한 표현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지적 없이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표현을 찾아내는 것일 것이다. 언어 습득에서 과잉 일반화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동의 언어 환경 속에 있는 언어 입력 자극 linguistic input의 성질에 대한 논의로 집약될 수 있다.

언어 입력 자극 linguistic input은 긍정적 증거 positive evidence와 부정적 증거 negative evidence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증거 positive evidence는 그 나라 언어가 허용하는 문법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증거 negative evidence는 어떤 문장이 그 언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구조일 때 그 문장이 비문법적이라고 알려주는 정보를 말한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언어 입력 자극의 역할에 대해 제기되는 중요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논쟁 중의 하나는 부정적 증거 negative evidence에 대한 것이다. 어떤 아동이 'I goed to school.'라는 문장을 산출할 때 성인이 그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

워 주면서 'goed' 대신 'went'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이것은 언어 환경에서의 부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증거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는 많은 연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Farrar, 1992; Bohannon III & Stanowicz, 1989; Penner, 1987; Demetras, Post, & Snow, 1986; Hirsch-Pasek, Treiman, & Schneiderman, 1984; Brown & Hanlon, 1970)³⁾.

부정적 증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Brown & Hanlon (1970)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Brown & Hanlon (1970)은 Adam, Eve, Sara 세명의 어린이의 관찰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아동의 발화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No, that's wrong. (아니, 틀렸어)"라는 부정적 반응은 통사적 정확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적합성이 반응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아이들 말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쓰였는지의 여부만을 지적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언어 습득에서 통사에 대한 부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면서 Learnability 이론 형성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Pinker, 1989; Wexler & Culicover, 1980).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일련의 연구들 (Farrar, 1992; Bohannon III & Stanowicz, 1989; Penner, 1987; Demetras, Post, & Snow, 1986; Hirsch-Pasek, Treiman, & Schneiderman, 1984)은 Brown

& Hanlon (1970)의 연구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Brown & Hanlon (1970)의 연구가 명시적인 부정적 증거 explicit negative evidence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들은 아이들의 부정확한 말에 대해 '아니 틀렸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부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정적 증거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다면 부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Demetras, Post, & Snow (1986)는 언어의 소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명료화 질문 clarification question', '확인 질문 confirmation question', '반복 repetition' 등은 소통을 차단시킨다는 면에서 암시적으로 언어의 비문법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을 아동이 표현하는 의미는 지속시키면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문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는 '문장 변경 recast'이나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 반복하는 '문장 확대 반복 expanded repetition'을 부정적 증거로 분석하기도 한다 (Farrar, 1992; Bohannon & Stanowicz, 1989). 이들 연구들은 문법적 오류를 정정하여 주는 '문장 변경', '확대 반복', '명료화 질문' 등의 반응이 문법적인 문장보다는 비 문법적인 문장 다음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아동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는 '정확 반복'은 비 문법적 문장보다는 문법적 문장에 더 빈번하게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다 (Bohannon & Stanowicz, 1989; Penner, 1987; Demetras et als, 1986; Hirsch-Pasek et als, 1984)⁴⁾. 이와 같이 성인의

3) Learnability 이론에서는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부정적 증거가 언어 입력 자극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I goed to school,'이라는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같은 논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언어 습득에서의 논리적인 문제를 'Learnability paradox' 또는 'Baker's Paradox'라 한다. Learnability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동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유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서 극복되어 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Gropen et al, 1991a; Gropen et al, 1991b; Pinker, 1989).

반응이 아동의 문법적인 말과 비문법적인 표현에 대해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결과는 명시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암시적으로 문법적 적합성을 알려 주는 단서가 언어 자극 속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earnability 이론가 또는 그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Gordon, 1990; Morgan & Travis, 1989; Pinker, 1989). Morgan & Travis (1989)는 그들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아동이 발화한 말을 확장시켜 반복하거나 명료화를 위한 질문이 문법적인 문장에 대해서보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에 더 빈번하게 주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인 반응이 문법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명료화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동의 비문법적인 말 다음에 오기도 하겠지만 그 밖에도 아이들 말을 잘 알아 들을 수 없을 때나 아이 말에 주의할 기운이 없어 아동의 말을 놓친 경우에도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Morgan & Travis (1989)는 이러한 단서는 통사적인 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담화 상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아동에게 이러한 반응이 주어졌을 때 통사적인 단서인지 다른 담화적인 맥락에서 주는 단서인지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명료화 질문'이나 '확인 질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단서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재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반응들은 문법적 문장이나 비문법적 문장에 차이가 없게 나타

난다고 보고한다. 그리하여 Morgan & Travis (1989)는 그들의 데이터에서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 사이를 구별해 주는 것은 문장을 변경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응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의 반응 중 이러한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작은 데다가 아동의 문법적인 오류가 사라지는 시기와 정정 반응이 주어지는 것이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어 입력 자극이 부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 (Gordon, 1990; Pinker, 1989)은 '암시적 부정적 반응'에 대한 통계적 수치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Bohannon & Stanowics (1989)는 아동의 말을 수정하여 반복하여 주는 '문장 변경 recast'이나 명료화를 위한 요구가 아동 언어의 비문법성을 알려 주는 단서가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의 데이터를 보면 아이들이 표현하는 비문법적인 문장 다음에 문장의 비문법성을 암시적으로 알려 주는 '문장 변경'등이 뒤따르는 경우는 오직 34% 정도이다. 또한 문법적인 문장 다음에도 '문장 변경'이 30% 정도 뒤따르고 있다. 만약 아동이 성인이 주는 '문장 변경'이라는 단서에만 의존하여 언어를 습득해 나간다면 문장의 비문법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즉 '문장 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66%)에는 아동이 잘못된 자신의 가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류없는 문장에 뒤 따르는 암시적 단서 (30%)는 아동의 정확한 가설을 바꾸게 해 줄 수 있는가? Bohannon & Stanowicz (1989) 등의 결론은 통계적

4) Hirsch-Pasek 등 (198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암시적 부정적 증거의 역할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어린 연령 집단 (2세)에서는 부모의 반응이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에 차별적으로 주어졌으나 3세 이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에 대해 Hirsch-Pasek 등은 엄마는 아이들이 통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기에 문법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과에 근거한 것이나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제시하여 주는 의미의 해석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증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대립하고 있는 두가지 입장에 접근하고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두 어린이의 언어 습득 초기 단계(2;0 - 3;5)의 산출 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증거'에 대하여 Pinker (1989)가 제시한 조건 중 두가지 조건을 살펴 보고자 한다. Pinker (1989)는 learnability paradox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 증거에 대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정적 증거는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부정적 증거가 존재한다 할 지라도 아이들에게 사용 가능하지 못하다. 셋째, 부정적 증거가 존재하고, 또한 사용 가능할 지라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사용한다 할 지라도 과잉 일반화를 극복하는 데 부정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 조건 중 첫번째와 세번째 만이 실증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Farrar, 1992). 지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첫번째 조건을 검증하고 있는 데 위에서 언급한 연구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세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Farrar (1992)만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조건과 세번째 조건을 검증하고자 두가지 종류의 반응, 즉 아동의 문법적 오류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그 부모의 반응 다음에 뒤따르는 아동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피험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어린이, 준 (2;0 - 2;11)과 연 (2;10 - 3;5)의 종단적 언어 관찰

자료를 분석하였다⁵⁾. 이 중에서 준의 자료는 매주 1시간씩 2;0에서 2;11까지 녹음된 것이고 연의 자료는 2주일에 한번씩 1시간 동안 2;10에서 3;5까지 녹음된 것이다. 준은 한국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이고 연이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아이이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기에 녹음된 시기까지는 한국어가 모국어라 할 수 있다.

아동 언어의 오류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음성학적인 오류나 의미론적인 오류등을 제외한 통사적인 오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지금까지의 영어 연구들에서는 과거형을 만드는 형태소 '-ed'를 'go'와 같은 불규칙 동사에도 적용하여 'goed'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서의 오류, man의 복수를 men이 아닌 복수형 어미 '-s'를 붙여 mans로 만드는 복수 접미어에서의 오류등의 형태론적인 오류와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를 생략한다든지 조동사 주어간의 어순을 바꾸지 않는 통사적인 오류등이 분석되었다 (Farrar, 1992; Morgan & Travis, 1989; Bohannon & Stanowics, 1988).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통사적인 성질을 찾아볼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문법적인 오류를 한국어의 통사적 특성을 고려한 다른 기준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찰된 두 어린이의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4종류의 통사적 오류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첫번째 오류는 의존 명사 '거 (것)'의 잘못된 사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⁶⁾. 한국어 명사는 크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어 지는 데 이 두 명사의 사용은 상호 배타적이다. 다시 말해 수식이 되는 자리에 의존 명사나 자립 명사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5) 연의 자료를 제공하신 조숙환 교수님과 준의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승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의 자료에서는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예, 큰 거 깊 치 먹으세요)를 볼 수 있다.

두번째 종류의 오류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형태소로서 주격 조사의 산출에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이/가'는 주격이라는 똑같은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형태소인데 그 앞 단어의 음운론적인 형태에 따라 쓰임이 결정되고 이 두 격조사가 동시에 쓰여 지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는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가'는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각각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어린이의 자료에서 보면 이 두 격조사가 연이어서 나타나거나 (예, 곰이 대신 곰이가), 또는 음운론적으로 '이'와 '가'를 잘못 사용하는 (예, 풀가 있어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두번째 문법적 오류의 대상은 주격 조사의 잘못된 사용이다.

세번째는 동사의 어미 활용에서의 오류를 분류한다. 이 세번째 범주에는 다양한 어미 굴절에서의 오류를 포함하는 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예)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빨 수 없다 (빨 수 없다)

내꺼 다 먹으네 (내꺼 다 먹네)

여기 타 있어요? (여기 타고 있어요?)

엄마 사졌는 타메라 (엄마 사준 카메라)

내가 아까 저기 막 먹었어 있는 데 (내가

아까 저기 막 먹고 있는 데)

나 이거 봐계 (나 이거 보계)

비 올 때 (비 올 때)

- 6) 이와 같은 오류는 '연'의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준'의 자료에서만 나타나나 '준'의 자료에서 빈번하게 찾아지는 경우이기에 분석에 포함하였다.
- 7) 한국어에서 '거'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거'를 기능적 범주인 보문자 (complimentizer)로 분류하는 반면에 (이귀옥, 1991). 다른 연구자들은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로서 분류한다 (김영주, 1992).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전통 문법의 분류에 의거하여 의존 명사로 지칭한다.

보도 돼? (봐도 돼?)

아동이 보이는 어미 활용에서의 오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그것들을 구별하여 따로 분류해 놓는다면 각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너무 작아 지기에 오류가 동사의 어미 굴절에 대한 것이라면 구별하지 않고 셋번째 범주에 포함시켰다.

네번째 오류는 부정문의 어순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서술어가 '체언+이다'인 문장의 경우는 체언에 주격 조사를 붙이고 서술격 주사 '-이다' 앞에 부정 표시 형태소 '안'을 삽입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남기심, 고영근, 1985). 본 자료의 초기 단계에서의 부정 표현은 부정 표시 '안'을 '체언 + 이다'인 구조 앞에 놓는 오류를 보인다 (예, 바보 아니다 대신 안 바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발화하는 모든 문장을 문법적인 것과 비문법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대신 이상의 4가지 기준으로 아동의 비문법적인 언어를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반응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화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8개의 범주로 부호화하였다. 첫번째 범주는 '명시적 반응'으로서 이는 Brown & Hanlon(1970)이 사용했던 분석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명시적 반응'으로 분류한것은 '아니 틀렸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틀린 것을 지적하여 주고 그 뒤에 문법적인 표현으로 정정해 주는 반응이었다. 그 밖에 사용된 기준은 '같은 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

대된 반복', '문장 변경'과 '확인 질문', '대화 계속', '무반응'등 이었다⁸⁾. 여기에는 세 종류의 '반복' 범주가 있는데 이 세 범주는 모두 오류가 있는 아동의 말을 반복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같은 말 반복'은 아동이 산출하는 말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고 '단축된 반복'은 아동의 말 중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을 반복하는 경우이고 '확대된 반복'은 아동의 말을 확장시켜 반복하는 경우이다. '문장 변경'은 아동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반복하여 준 경우인데 '명시적 반응'과 차이점은 '아니야 틀렸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정정하여 준다는 점이다⁹⁾. '확인 질문'은 아동의 말에 대해 확인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또는 '다시 말해 봐' 등의 되묻는 질문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한 예가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아동말	성인반응	성인 반응의 분류
내꺼 책	아니꺼책	같은 말 반복
안 용감하구	용감하구	단축된 반복
내가 인영터리야	준규가 왜 인영터리야	확대된 반복
파파공이가이오하는거야	파파공이가이오하는거야?	문장 변경
편저 아파트	무슨 아파트?	확인질문

그 밖의 범주로서 분류 대상이 되는 말 다음에 성인의 반응이 오지 않고 아동의 말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를 '무반응'으로, 아동의 문법적인 표현에 관계없이 성인이 화제를 계속 이어 나가거나 화제를 바꾸는 경우는 '대화 계속'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의 반응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자기 말 반복', '성인말

모방', '대화 계속', '무반응'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성인의 반응이 무엇이던 간에 이전에 자기가 표현했던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는 '자기 말 반복'으로, 성인의 반응을 모방하여 반복하는 경우는 '성인 말 모방'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이 아동의 말을 반복하여 반응하고 아동이 그 반응을 되풀이 하여 반복한 경우에는 이 두 범주 중 어디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성인의 반응이 아동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 말 반복'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대화 계속'이나 '무반응'의 분류 기준은 성인 반응의 기준과 같다.

결 과

두 어린이의 반응 빈도수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준 (2;0-2-11)

성인 반응	의존명사'계'		주격조사		동사어미활용		의문문 어순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같은말 반복	5	12	17	2	6	4	7	15
단축된 반복	12	2	13	1		5	3	11
확대된 반복	7	2	8	2	1	3	5	18
문장변경		1		5		10		1
확인질문	1	1		1				4
대화계속	58	35	53	3	7	32	24	44
무 반응	22	6	13	2	3	4	3	18
명시적반응						1		
계	105	59	104	16	17	59	42	111

8) '같은 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문장 변경'의 범주에는 서술의 형태 뿐만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도 포함시켰다.

9) 본 연구에서의 '문장 변경'은 Farrar (1992)의 'corrective recast'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성인 반응	의존명사'거'		주격 조사		동사어미활용		의문문 어순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문법	비문법
같은말 반복			1		8	7		
단축된 반복			1	1	7	3		1
확대된 반복			1	1	5	1		
문장변경				6		6		
확인질문								
대화계속			2	3	28	13		2
무 반응				1	6	1		2
명시적반응								
계			5	12	54	31		5

위의 8개의 반응 범주에서 Brown & Hanlon (1970)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반응'은 '연'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준'의 자료에서는 513개의 반응 중 1개의 반응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rown & Hanlon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보이는 통사적인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 내고자 했던 소위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라 불릴 수 있는 나머지 7개의 범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의 첫번째 물음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문제의 초점으로 삼았던 암시적으로 주어지는 부정적인 단서들이 문법적인 문장과 비 문법적인 문장에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분석 기준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 보면 문법적 문장과 비 문법적 문장을 구

별해 주는 단서로서 '문장 확장 expansion', '확장된 반복 expanded repetition', '확인 질문 confirmation question', '문장 변경 recast', '명료화 질문 clarification question' 등의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Farrar, 1992; Morgan & Travis, 1989; Bohannon & Stanowicz, 1988; Demetras et al, 1986). 이 범주 중에서 Morgan & Travis (1989)가 지적했듯이 '확인 질문'과 '명료화 질문'은 그것들이 통사적인 정확성 여부에만 근거하여 주어진다기 보다는 담화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질 수 있기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¹⁰⁾.

나머지 4개의 범주를 살펴 보면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느 면에서는 공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시적 부정적 증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Demetras et al (1986)이 사용한 '확장된 반복'과 Morgan & Travis (1989)가 사용한 '문장 확장'은 같은 반응 기준을 표현한 것인데 오류가 있는 문장을 정정 확대 해주거나 새로운 정보를 부가하여 아동의 발화를 반복하는 반응을 분류한다. Morgan & Travis (1989)나 Demetras et al (1986)는 그들이 사용한 '문장 확장'이나 '확장된 반복'이 문법적 문장과 비 문법적 문장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빈도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¹¹⁾. 특히 Demetras et al (1986)은 이러한 단서를 아동의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을 구별하여 주는 암시적 부정적 반응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들이 사용한 '문장 확

10)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확인 질문이나 명료화 질문이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자세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발화를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나타났다.

11. Morgan & Travis(1989)는 Demetras et al (1986)의 결과처럼 그들이 암시적 증거로 사용한 단서가 문법성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하지만 Demetras et al (1986)와는 다른 결론을 이끌고 있다.

장'이나 '확장된 반복'에서는 문장의 문법적 수정없이 새로운 정보를 부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정정 반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부가해 주는 것은 문법적 문장이거나 비문법적 문장 어느것에도 가능하지만 문법적 오류를 정정해 주는 반응은 아동의 비 문법적인 표현 다음에만 가능하고 문법적인 문장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법을 정정하는 반응을 같은 범주에 분류한 것은 문법적 문장에 대한 반응에 비해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반응의 빈도수를 상대적으로 높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별개로 분류해야 할 반응을 같은 범주로 묶어 비교하였다는 것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반응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을 지도 모를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Morgan & Travis (1989)나 Demetras et al (1986)에서 보이는 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Farrar (1992)는 문장을 확장하여 반복하는 경우와 오류를 정정하는 반응을 구별하여 분류하였는데 Farrar (1992)가 사용한 '문장 변경'은 후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Farrar (1992)는 Demetras et al (1986)이나 Morgan & Travis (1989)와는 달리 아동의 발화를 정정하지 않고 아동 말의 일부 단어를 이용하여 아동의 말을 확장하여 주는 것은 긍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대신 아동의 비문법적인 문장 다음에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여 주는 것 (문장 변경)만이 암시적으로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하여 아동 언어 습득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Farrar (1992)의 분석 기준에서처럼 문장 수정이 포함되는 반응과 아동의 말을 단순히 확대해주는 것을 별개로 분리하였다. 문법적 오류의 정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문장 변경'

으로 문법적 오류의 정정 없이 문장의 표현을 확장시켜 반복하는 경우는 '확대된 반복'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문장 변경'에 해당하는 반응이 문법적 문장 다음에 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arrar (1992)와는 달리 '문장 변경'을 부정적 증거 대신 긍정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아동의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성인의 반응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몇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χ^2 검증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범주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반응을 비교하여 보았다. '같은 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 '대화 계속'과 '무반응'의 6개 범주에 대하여 두 어린이의 자료에 대해 각각 χ^2 검증을 하였는데 문법적 문장과 비 문법적인 문장에 대해 다른 분포를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준: $\chi^2(5)=7.12, p>.05$; 연: $\chi^2(5)=, p>.05$). 이상의 반응의 범주들 중에서 '대화 계속'과 '무반응'은 아동 표현의 문법적인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대화의 연속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반복', '문장 확장', '확인 질문' 등의 반응에서 문법성과 비문법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대화 계속'과 '무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범주, 즉 '같은 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에 대하여 두 어린이의 자료를 각각 χ^2 검증해 보았다. 결과는 이 4개의 반응이 문법적 문장과 비 문법적인 문장에 대해 다른 분포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준: $\chi^2(3)=5.68, p>.05$; 연: $\chi^2(3)=0.27, p>.05$).

이상의 4개의 범주를 암시적인 단서라고 가정한다면 이들 암시적인 단서로 분류되는 반응과 '대화

계속'이나 '무반응'과 같이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반응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암시적 단서로 분류될 수 있는 위의 네 범주를 합친 빈도와 '대화 계속', '무반응'을 비교하였는데 이들 반응의 분포에도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준: $\chi^2(2)=1.41, p>.05$; 연: $\chi^2(2)=0.05, p>.05$). Demetras et al (1986)는 '같은 말 반복'은 문법적인 문장 다음에 많이 오고 '확대된 반복'은 비문법적인 문장 다음에 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보면 오류의 범주에 따라 다소 다

른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묶어서 생각한다면 '같은말 반복'으로 분류되는 성인의 반응이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에 대해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준: 문법적 문장 (51%) vs 비문법적 문장 (49%); 연: 문법적 문장 (53%) vs 비문법적 문장 (47%)). Demetras et al (1986)의 '확대된 반복'에는 본 연구에서의 분류한 범주 중 '문장 변경'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들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암시적 단서로 가정한 4개의 범주 중에서 '같은 말 반복'과 다른 세개의 범주를 합쳐서 비교했을 때 문법성에 대한 차이를

[표 3]

준

	같은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		대화 계속		무 반응		문장변경 UG
	G	UG	G	UG	G	UG	G	UG	G	UG	G	UG	
SR	2	3	2	4	1	7	1	3	14	15	4	8	
AI									3	5			
MO	28	28	27	14	23	17		2	121	94	37	21	19
NR	1					24				2			
계	31	31	29	18	24		1	5	138	116	41	29	19

연

	같은말 반복		단축된 반복		확대된 반복		확인 질문		대화 계속		무 반응		문장변경 UG
	G	UG	G	UG	G	UG	G	UG	G	UG	G	UG	
SR	1	1			1				2			2	
AI									1				
MO	6	5	7	5	4	2			24	17	6	2	11
NR											1		
계	7	6	7	5	5	2			27	17	7	4	11

SR: 자기말 반복
 AI: 성인말 모방
 MO: 대화 계속
 NR: 무 반응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으나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준: $\chi^2(1)=0.81$, $p>.05$; 연: $\chi^2(1)=1.00$, $p>.05$).

성인의 반응 다음에 오는 아동의 반응의 빈도수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아동의 반응은 문법적 오류에 관계없이 각 성인 반응에 대응하여 나타난 반응을 정리하였다. 성인의 반응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그것이 문법적인것을 지적해 주던 그렇지 않던 간에 특별히 주시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거나(MO) 자기 말을 반복하는 경우(SR)가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문법적인 표현을 정정해 준 '문장 변경'의 경우에도 바꾸어준 문장의 표현에는 관계없이 대화를 계속할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성인의 말을 모방한 경우는 성인이 대화를 계속하는 반응을 보인 경우만이 보이는 데 이 경우는 성인 말에 대한 통사적인 요소때문에 성인 말을 반복했다기 보다는 담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말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게 암시적인 부정적 증거가 주어진다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단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논 의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이 증명해 보였던 암시적인 부정적 단서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아동이 표현하는 문법적인 문장이던 비문법적인 문장이던 성인이 주는 반응들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주어졌음을 볼 수 있다. 단지 비문법적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 변경이 비문법성을 알려주는 단서의 가능성을 가지는데 '준'의 경우는 17개의 사례가 '연'의 경우는 12사례가 관찰된다. 우선 이러한 문장 변경이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Farrar (1992)는 문장 수정이 포함되는 반응을 암시적 부정적 증거로 분류한 반면에 Grimshaw & Pinker (1989)는 '문장 변경'에 해당하는 반응을 긍정적 증거의 한 형태로 분류하였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장 변경'이 주어졌을 때 아동이 발화한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언급이 없이 주어지는 반응이기에 형태상으로는 긍정적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Pinker (1989)는 문장을 수정하는 것이 부정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하여는 비문법적인 표현과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 사이의 통계적인 상관 관계와 긍정적 증거가 되는 수정의 내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Farrar (1992)는 문장의 문법성을 수정하지 않고 바꾸어 주는 경우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들도 긍정적 증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와 수정이 포함된 문장 변경의 경우가 같은 수준의 모방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정확하게 반복된' 반응보다 문장 수정이 포함된 '문장 변경'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보면 문장 수정이 포함된 반응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 반응에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두 어린이가 모두 '문장 변경'의 경우 대화를 계속하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준: 100%; 연: 100%). Farrar (1992)의 두번째 가정도 역시 본 데이터에서는 부정되는데 '같은 말 반복'이나 '문장 변경' 모두에서 성인이 주는 반응을 반복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증거가 '문장 변경'이 긍정적 증거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여 주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문장 변경'이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주는 영향이 다른 반응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입장에서도 이 두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문장 변경' 사례는 다른 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빈도를 보일 뿐이다 (준: 3.3%; 연: 11.2%).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 반응에 근거하여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아동 언어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분류한 암시적 부정적 증거의 어느 것도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이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것 보다는 아동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유적인 제약에 근거로 이루어지는 보다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learnability 이론을 지지해준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과제는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이끌어가는 본유적인 제약이 무엇인지를 밝혀 내는 것일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언어 습득에서 성인이 주는 반응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Demetras et al (1986)이 주장했듯이 부정적 증거의 정의를 확대하여 암시적인 증거까지도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단서들이 언어 습득 과정에 미치는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응들을 부정적 증거로 본다면 지라도 아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주시한 흔적은 더우기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습득에서의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부정하며 본유적인 언어 능력에 의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learnability 이론의 입장을 지지한다.

참고문헌

- 남기심 & 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탐 출판사.
- Berwick, R. (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Cambridge, MA: MIT Press.
- Bohannon, J. N., III & Stanowicz, L. (1988). The issue of negative evidence: Adult responses to children's language err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684-689.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R. & Hanlon, C. (1970). Derivational complexity and order of acquisition in child speech. In J. R. Hayes (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p.11-53). New York: Wiley.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Demetras, M. J., Post, K. N., & Snow, C.E. (1986). Feedback to first language learners: The role of repetitions and clarification 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275-292.
- Farrar, M. J. (1992). Negative evidence and grammatical morpheme acqui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0-98.
- Gordon, P. (1990). Learnability and feedback.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17-220.
- Grimshaw, J., & Pinker, S. (1989). Positive and negative evidence in language acquisi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341-342.
- Hirsh-Pasek, K., Treiman, R., & Schneiderman, M. (1984). Brown & Hanlon revisited: Mothers' sensitivity to ungrammatical for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1, 81-88.
- Morgan, J. L., & Travis, L. L. (1989). Limits on negative information in language input. *Journal of*

- Child Language, 16, 531–552.
- Penner, S.G. (1987). Parental responses to grammatical and ungrammatical child utterances. *Child Development*, 58, 376–384.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exler, K., & Culicover, P.W. (1980). *Formal principles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The role of Negative Evidence in Language Acquisition : From the Korean Production Data

Hyeonjin Lee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hether explicit or implicit negative evidence plays a role i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It analyzes a longitudinal production data form tow Korean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2 ; 0 to 3 ; 5. The four types of syntactic error that most frequently occur in our data are tabulated ; 1) overgeneralization error in nominative case-marking pattern in Korean. 2) the wrongly inserted the complimenter 'ke'. 3) several morphological errors with regard to the complement construction or inflectional elements. 4) the word order of negative constructions. There are two kinds of criterion for the analysis. Maternal responses that followed the child's sentences are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8 categories ; 1) Exact Repetition 2) Contrated Repetition 3) Expanded repetition 4) Corrective Recast 5) Confirmation Qustion 6) Topic Continuation 7) No Response 8) Explicit Response. The listed responses expet Explicit response may by considered as an implicit negative evidence. The child's response in the utterance prededed by the adult's response is coded into one of the 4 categories ; 1) Imitation of the adult's target 2) Repetition for original child sentence 3) Topic continuation 4) No Response.

The overall results are as follows ; 1) Neither explicit negative evidence nor implicit negative evidence does not play any role in Korean language acquisition. 2) Although there are small number of audlt's corrections on the children's grammatical error, children never notice them at 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language acquisition preceeds on a schedule of some innate constaraints rather than the negative evidence.